



月刊 7
2008년 7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趙晟漢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02)2001-762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kjc1405@hanmail.net Fax 02)730-1270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SINCE 1977 - 원로 언론인들의 열린 광장 / www.kjclub.or.kr

제 268호

‘깃발 쇼’와 짓밟히는 공권력…“法治는 없었다”



클릭! 이 한마디

(일간신문 사설 모음)

▶경찰버스 지붕 위에서 펄럭인 깃발들 = 21일 밤부터 22일 아침까지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밤새도록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 경찰이 촛불시위대의 청와대행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로 만든 차단 벽 앞에 시위대가 모래주머니로 ‘국민토성’이란 것을 쌓았다. 이를 밟고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간 시위대는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는 깃발을 흔들었다. ‘구국의 햇불 서총련’ ‘노동자의 힘’ ‘전국교직원노조’ ‘민주노총’ ‘진보신당’ ‘공공노조’ ‘민족반역자처단협회’ ‘다함께’ 같은 단체들과 ‘안티 이명박’ ‘아고라’ 같은 인터넷 모임의 깃발이었다.

시위대가 경찰버스의 지붕 위에서 휘두른 깃발들은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면 재협상과 이명박 퇴진을 외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동아일보>

▶도로 막고 경찰버스 부수고 시민에게 욕하는 시위대 = 경찰은 ‘48시간 집회’ 동안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21일의 경우 일반시민과 중·고생이 각각 300명쯤 됐고 나머지 900명은 노조와 단체 조직원, 대학생들이라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이제 시민들의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 좌파단체와 이익집단이 벌이는 반정부 투쟁의 마당이 돼 버렸다. 이들은 시위 도중 “5년 내내 촛불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투다.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 도로와 광장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한 시민의 재산이지 촛불시위대의 것이 아니다. 쇠고기사태에 얽혀 저마다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도로에 나와 차를 막고 전경버스를 흔들고 선량한 시민에게 욕설을 해대는 시위대를 언제까지 이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촛불 대신 국회 불 밝힐 때다 = 정치권이 촛불집회장을 기웃거릴 게 아니라 국회는 불을 밝혀 갈등 수렴에 힘을 보태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그런 국민적 바람이 표출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축산농가 보호나 원산지 단속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빠져린 반성’을 하도록 했다면 국민의 힘을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광우병 대책회의 등 일부 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과격한 시위를 계속 한다면 촛불의 순정을 변질시키는 행태일 것이다. <서울신문>



전경버스를 점령

<上> 시위대가 모래토성을 밟고 전경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자신들의 정체가 선명하게 부각된 깃발들을 흔들고 있다. 6월 21일의 촛불문화제 모습이다.

한국적 ‘평화시위’

<下> 6월 26일 새벽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미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 시위에서 시위대에게 끌려 나온 한 경찰이 폭행당하고 있다.<연합>



본회 입회비 50만원 단일화

이사회 결정 하반기부터 연령기준 차등없애

심사 거친 23명 입회 승인… 치과진료는 의료비 제외

을 하반기부터는 본회 입회비가 연령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일률 부과된다.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는 6월 19일 제 117차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65세 미만 입회자에게는 30만원만 납부토록 해왔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회우자격심사를 통과한 23명에 대해 본회 입회를 승인

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치과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밖에 회보 직영에 따른 광고 수주에 회우들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회우 장례와 관련해 장례전문회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사회가 끝난 뒤 회장단을 비롯해 이사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오찬을 함께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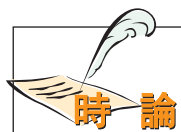
올림픽 체념은 SBS입니다

달리는 선수들의 한 땀마다
지켜보는 감독들의 한순간 마다
응원하는 국민의 한 마음이
전 세계에 닿을 수 있도록
SBS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뛰겠습니다



▲ 김정일 SBS 아나운서

▲ 박문성 SBS 해설위원



이념의 덧… MB ‘牛患’



김 경 래

- 본회 논설위원
- 경향신문 편집국장
- 국민일보 논설고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얼굴도 보기 싫다. 보기 싫은 사람의 말은 듣기도 싫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과 행각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첫 단추를 바로 끼우지 않고 버티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530만 표라는 많은 표 차이로 최고통치자가 된 이명박 대통령은 표심 읽기에 실패한 것 같다.

큰 틀에서 말하면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했다가 최근에는 보수가 아니라는 등 회색지대를 찾아 다녔다. 이 바람에 건국 60년을 자랑해 온 보수층은 외면하게 되었고, 반미 수구 좌파는 득세의 기회로 삼았다. 이념도 철학도 없는 업자들의 속성이 내각과 비서관 구성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국민의 평균 소득(재산)의 수십 배나 되는 부자

票心외면 ‘첫단추’ 잘못 끼워…촛불에 발목 “문제는 소가 아니야” 국가정체성 확립부터

들이 이명박 주변을 형성하자 상대적 빈곤을 넘어선 박탈감까지 안겨 놓았다. 집권 초부터 잃어버린 도덕적 정당성과 경제책략의 부재 현상은 마침내 촛불공간을 확대시켰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 자유민주헌법 수호세력의 충고를 우습게 취급하고 가볍게 대처하는 바람에 ‘정권퇴진’까지 들고 나오게 만들었다.

지지율 10%대로 추락하는데 걸린 기간은 고작 석 달, 비참한 현실 앞에서 단추 같아 끼우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큰 대동단결의 길로 나가리라 기대했었다.

박근혜를 재빨리 안아들이고 이회창에게 다가서서 겸손한 몸짓을 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체질이 남아있는 손학규를 747의 협찬자로, 친박연대 서정원에 대한 앙금과 편견을 집어 던지고 화합의 가슴을 열게 되기를 소망했었다. 물론 현실 정치와 권력 구조를 단순 논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워 게임에 관심이 없는 「자유민주반핵 반김」 소시민들의 정서는 어디까지나 ‘대동단결’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었다. 지켜보던 우파들의 탄식 실망 절망이 쌓이면서 이명박에 대한 재평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지하에서 모의한 촛불 소동이 ‘이명박 OUT’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념 없는 실용주의, 안보 없는 기회주의가 쇠고기 덧, 미션·효순 덧, 6·10 덧에 걸려 총체적 난국을 자초하게 되었다. 분단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실용주의는 6·15, 10·4가 깔아 묻은 종북·반미·반대한민국 세력의 지뢰밭을 직시하지 못했고, 수도 한복판의 ‘해방구’와 대남공작과는 아무런 함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김정일의 대남적화공작은 전천후 연중무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기 싫어하는 태도가 실용주의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을 대동단결 없이 회복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잘못된 첫 단추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결코 늦지 않았다. 아직 4년 반이 남았다. 돌아서기엔 충분한 시간이고 돌이키는데 충분한 권력이 남아있다.

언론을 탓해서도 안 된다.

최고의 언론은 대통령의 입이 아닌가? 대통령이 방송 3사 앞에서 국론통일 민족통일을 위한 대동

단결을 외쳐보라.

대통령의 입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나도 먹고 우리 아이들도 먹는다”고 소신껏 말해 보라. 그리고 “내가 국민을 해롭게 하겠는가”라고 피눈물 나는 모습과 어조로 호소해 보라. 어느 국민이 그의 절실하고 신실한 부르짖음에 저항의 촛불을 들겠는가?

정치 잘 아는 신복이 주변에 있는가? 외교를 제대로 알고 닭은 재사(才士)가 있는가? 안보에 확고한 신념을 지닌 용사가 있는가? 교육과 문화예술·IT 신기술에 뛰어난 인재가 대통령을 신실하게 보좌하고 있는가?

민약에 있다면 난국은 극복할 수 있다.

거짓에 심지를 박은 촛불은 가만 두어도 꺼지게 되어있다. 대동단결이 가시화되면 촛불 든 축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워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법이다.



이윤수 박사(왼쪽)와 본회 조창화 회장이 강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립선 수술치료는 옛말”

‘노년기 건강’ 첫 강의 성황

대한언론인회가 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성과학연구소와 제휴해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첫 강의가 6월 14일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 병원에서 열렸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 전문의 이윤수 박사의 열강이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50대엔 50%, 60대엔 60%, 70대엔 70%가 발병할 정도로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수술에만 의존하던 예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약물과 레이저 시술로 간단히 치료되며 당일 퇴원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 만큼 성기능 저하나 전립선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증상을 빨리 해결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노년기 건강 포럼’ 월례화

대한언론인회는 (사)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 이윤수 박사)와 제휴하여 ‘노년기 건강관리 포럼’을 월 1회 상설화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포럼’을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명동 로얄 호텔 옆 ‘이윤수 비뇨기과’ 병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7월 주제는 ‘노년기 성생활’

12일 오후 3시 명동이윤수비뇨기과

제 2차 ‘노년기 건강관리 포럼’ 역시 ‘노년기의 성생활’이란 제목으로 오는 7월 12일(토) 오후 3시 명동 이윤수비뇨기과 강당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들께서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32-4797, 2001-7621)

“네티즌들 광고주 협박 중단해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6월 20일 성명을 통해 특정신문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강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뒤흔드는 불법 행위”라며 “이는 기업들의 광고할 자유를 앗아갈 뿐 아니라 신문산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에 대해 “사이버 공간이 신문의 자유언론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정보 유통 공간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문의 피해에 대해서

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광고중단운동 ‘신속 수사’”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수사와 관련해 6월 23일 오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형사 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 2명,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 폭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수사기법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연합>

‘다음’, 특정언론 게시물 차단

포털 업체 ‘다음’이 보수성향의 한 언론사 관련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6월 22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다음’은 최근 A신문으로부터 다음 ‘아고라’의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관련 게시물을 임시 차단 조치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했다.

溫故知新

“平亂됐어요, 평란”

8·15가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이 우리 동네에 들어 닥친 것은 1945년 봄 우리가 막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간 며칠 뒤였다. 그들은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 전복 서해안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마을 뒷산 수양산 꼬리 으스스한 곳에 속사포 진지가 몇 개소 축조되고 앞산 사기봉 위에는 고사포를 놓는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있었다. 뭇 모르고 갯벌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쿵쿵 다다다다 갈겨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통쾌해 했다. 하루 빨리 ‘전쟁구경’을 하고 싶었다.

어쩌다 끼니 때가 되어 부대 근처를 얼씬거리면 그들은 잘 왔으며 밥 한 두 젓가락을 우리 꼬마들 입에 넣어주었다. ‘헤이타이상’(군인 아저씨)은 참으로 씩씩하고 정다웠다. 흥년에도 공출 등쌀에 춘궁기가 따로 없던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어느 날 저녁 우리 꼬마들이 바닷가에서 마을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육군 중위 앞에 나란히 서서 ‘천황폐하 만세’를 기차게 부르더니 금세 군도를 땅에 짚고 통곡을 해대었다. 병사들은 총을 앞에 놓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어댔다. “니홍와 마켓타”(일본은 졌다) 우리 꼬마들도 덩달아 울었다.

일본이 이긴다고 그토록 큰 소리를 치더니 어떻게 싸움도 안 해보고 항복했던 말인가. 바로 그 날 밤 늦게까지 그들이 태우는 서류연기가 여름 하늘을 덮었다. 그 시골에서까지 적기의 공습목표가 된



김진배

· 본회 논설위원
· 국회의원(2선)
· 자유기고가

다 해서 모깃불은 커녕 등잔불도 켜지 못하게 했던 그들이 그토록 온 동네가 환하도록 불을 피우다니 뭔가 큰 일이 난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부대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총에다 칼을 꽂고 서있기는 하지만 다정스럽게 그지없던 보초가 이젠 우리 꼬마들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개새끼들 저리 가라’는 투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군인이 맨손으로 우리 앞집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신기해서 졸졸 따라갔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이제 고향으로 가요.” 우리는 깜짝 놀랐다. 일본군인 입에서 나온 처음 듣는 조선 말이었다. “저 고향이 군산이라요. 인자 군대 가고 징용간 조선 사람들 다 돌아와요. 평란(平亂)됐어요. 평란! 할머니 아들도 곧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본군이 주둔하던 학교가 다시 시작된 것은 여름방학이 끝나고서도 아마 한 달도 더 뒤였다. 조선 사람 선생이 있어야 학교를 열지, 시골 학교인데도 3분의 2가 일본 선생이었고 그나마 서넛 되던 조선 사람 선생도 고향 가서 선생질한다고 가버려 고향 쪽 선생은 12학급에 단 두 사람 뿐이었다. 개학한지

며칠 뒤 우리는 학교에 갔다. 교실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고 습기가 차 고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운동장은 풀이 호랑이 새끼 칠 만큼 우거져 있었다.

수염이 덩수룩한 노인이 핑크 난 자전거를 받쳐 놓고 일본 말로 외쳐댔다. 노트며 연필이며 연필심이며 크레파스를 양손에 쥐고 “이건 달걀 한개” “이건 달걀 두개” “쌘니다. 싸! 반값에 외상입니다. 내일 이 자리로 달걀 가지고 오세요.” 한두 달 전까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물건도 좋고 싸다 싶었다.

거기에도 외상까지. 돈은 없어도 달걀 몇 알쯤은 어느 집에도 있다. 수십 명 아이들이 너도나도 손을 벌리며 학용품을 사갔다.

교장은 “장하다 장해, 훌륭한 조선 애들”하며 고마워했다. 폐허처럼 버려진 일본 조상을 모신 사당(호안당)쪽을 향해 두 손뼉을 탁탁 치며 고개를 수그려 절을 했다.

우리는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6학년 상급생 아이들 네댓이 일제히 “쭈발이! 쭈발이!(일본 사람을 멀리해서 하는 말)”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양이 “이놈 먹어라!”였다. 그 이튿날 점심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갔다.

일본 사람 교장은 어제 당한 봉변은 아랑곳없이 달걀을 들고 온 우리 꼬마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사간 아이들 가운데 교장에게 물건 값으로 달걀을 전한 아이들은 반도 되지 않았다. 고사리 같은 손안에 든 달걀 한두 개를 교장에게 전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마치 죄나 지은 것처럼 어색하게 보였다.

교장은 그저 고맙다고 말할 뿐 어제 같은 기쁜 표정은 없었다. 자기가 평생을 두고 받들고 모셨던 ‘가미사마’(일본의 조상 신)마저 외면한 채 총총히 떠났다.

정연주 사장 ‘현명한 처신’ 촉구

KBS 여맥희 “갈등·분열 치유”

보도 분야에 종사했던 전직 KBS인들의 모임인 여맥희 회원들은 6월 17일 “KBS가 최근 감사원의 감사와 KBS내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 등 외부적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사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조직원 상호간의 분열과 불신, 갈등 증폭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를 조속히 치유할 수 있는 길로 KBS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이들은 “KBS는 취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기자들 간의 갈등과 편가르기가 노골화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청자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KBS 내부 동향을 빈번하게 뉴스로 다뤄 뉴스의 사유화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들은 “사장이 조직의 통합과 조정이라는 중추기능을 포기한 채 조직을 지리멸렬 황폐화 시키고 KBS의 미래 발전 동력마저 잠식 훼손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청자들에게는 KBS가 물러난 정권인 참여정부 잔류세력의 최후 거점처럼 비친다”며 모든 문제의 진원인 정연주 사장의 현명한 처신을 촉구했다.<영>

KBS노조 “촛불집회 민주당 개입”

KBS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은 최근 서울 KBS 본관 앞에서 ‘정연주 사

장 사수’ 등을 내걸고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에 통합민주당과 친노무현 단체가 개입돼 있다고 6월 18일 밝혔다.



15일밤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행진이 마치 황금빛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다. 카메라 노출 시간을 길게 해 촬영했다.

“서울 불바다”가 현실로?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서울 불바다” “서울 잿더미” 등의 폭언으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해 왔는데 이번에 모 일간지에 ‘불바다가 된 서울 시가지’를 연상케 하는 사진이 게재되어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의 사진은 6월 15일 밤 서울시청 앞 촛불시위 행렬이 이동하는 광경인데 혼란 기법이지만 카메라 셔터 조작으로 자동차

노조는 ‘민주당은 KBS 촛불시위에서 빠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순수한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집회에는 감사를 보내지만 이에 통합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반대한

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 정권에서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고 이제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

太平漫評

沈載福 본회 편집위원



신문시평

뒤틀고 재 뿌리는 題目들



이 병 국

- 본회 회우
-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결국 6월 한 달도 ‘쇠고기’로 밤낮을 지새웠다. 지난 달 초부터 ‘광우병 쇠고기’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 두 달이 가깝도록 끝이 보일 기미조차 없다. 뽕 뽕으려다 소 죽인다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파국을 보고 말려는 것인가?

적어도 신문 머리기사 표제(Title)만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혼돈과 무질서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머리기사 표제는 기사 전체를 알기 쉽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표제를 보고 내용을 이해한다.

필자는 쇠고기와 쇠고기에 간접적으로 관련돼있다고 생각되는 1면

압도적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적으로 보이는 머리기사 표제가 25건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21건을 앞지르고 있다. 많은 독자들에게 쇠고기 문제가 여전히 건강에 해롭고 해결의 실마리도 없는 나쁜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또는 촛불시위든 정부의 노력에 따라 해결이 가능한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21건이나 되었다.

필자가 보는 문제는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접근과 보도행태가 매체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쇠고기 관련 보도의 기사 표제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한겨레(9건)와 경향신문(6건)이며 동아일보 등 다른 신문에서 보는 부정적 시각은 적게 나타나 있다. 반면 쇠고기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보인 신문은 동아일보(6건)와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으로 매체에 따라 대조적이다.

‘쇠고기’ 관련 머리기사 視角差 뚜렷 독자들에게 ‘부정적 含意’ 전달 많아

머리기사 표제에 사용된 단어와 문맥이 시사해주는 진정성 과장성 또는 선정성 등을 기준삼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각 신문에 보도된 1면 머리기사의 표제들에서 어떤 함의와 느낌을 받고 이해했을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표제에 사용된 단어나 문맥이 독자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월 5일자 경향, 중앙일보를 제외하고 모든 신문이 쇠고기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긍정적인 기사를 해주는 표제를 ‘미, 30개월 이상 반입 안 되게 노력’(동아), ‘미 업체, 자율결의판 고시 공표’(서울), ‘국내 업체들…30개월 미만만 수입’(조선), ‘미 수출업체 월령표 시판 쇠고기 수입재개’(한국) 등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으로 ‘목심, 갈비, 곱창 등 부산물 미 육류협, 한국 수출 총력’(경향), ‘여권서도 외교마찰 감수하고 재협상해야’(한겨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본다. 지난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문이 발행되는 17일간 경향신문 등 7개 중앙지의 머리기사 표제는 모두 119개였다. 그 중 쇠고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머리기사 표제가 57건, 전체 머리기사의 절반에 가까운 60%로 쇠고기 문제가 단연

● 쇠고기 관련 1면 머리기사 표제

구분	기사성향			비고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경향신문	1	6	1	57
동아일보	6	2	1	
서울신문	4	3	2	
조선일보	4	2	1	
중앙일보	3	2	1	
한국일보	2	1	4	
한겨레	1	9	2	
계	21	23	12	

* 필자 분석(2008. 6. 2 ~ 6. 20)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문은 서로를 비아냥거리고 탓대질하며 조롱을 퍼붓고 고의적으로 상처를 내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정파적이고 이념적 선호에 따른 편파적 보도에 매몰되었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문엔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보거나 최소한 해결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시각을 갖기 보다는 무언가에 ‘채를 뿌리고 뒤틀어 보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기사에 못지않게 과대한 표현의 표제로 ‘빨간 민심’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중국 우화도 있다. 물에 빠진 고양이가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 마침 지나던 개가 고양이를 목을 물고 나오려니 고양이는 목이 너무 아파 제발 살살 물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물으로 나왔을 때 고양이는 정작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개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 길을 서둘렀다.

방송시평

끝내 넘지 못한 ‘천국 국경’

지난 3월 일부 케이블을 통해 방영됐던 조선일보의 탈북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다시 EBS를 통해 지난 6월 9일, 10일, 11일 3일간 잇달아 방영되었다.

1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목숨을 건 탈북과 인신 매매, 마약 밀매 등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중국으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의 절규와 그들이 낳은, 그래서 호구부(호적부)가 없는 무국적 어린이들의 암담한 처지를 고발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땅 틈나에 있는 벌목소에서 도망친 북한 벌목공의 애환을 담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탈북자의 참담함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견딜 수 있구나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0시간이 넘게 산을 헤매며 국경을 넘는가 하면 철쭉 같은 밤에 밀창이 다 보이는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공안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탈북 여인이 낳은 쌍둥이 자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남북의 창 부장
- 신성대 교수

KBS는 “작년 우리 옆집에서 작은 아들만 남고 한 가족이 모두 굶어 죽었어. 아들은 부엌에서 엄마는 방 안에서 죽고…”라는 북한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식량난의 단면을 소개하면서 가족해체 현상과 맞물려 한때 즐겼던 꽃제비가 최근 다시 늘어나 전국 각지에 20여 만 명이나 될 것이며 이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고 매 맞다가 죽어간다는 등의 실상도 알게 해 주었다.

다만 조선일보의 탈북 다큐멘터리 3부에서 벌목공 출신 탈북자 한동만 씨의 안내로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 벌목사업소에 잠입하는 장면은 스틸이 있었고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디지털 카메라를

주변 맴돈 취재…脫北다큐의 한계 북한벌목사업소 잠입촬영엔 경의

녀는 한 번 도망갔던 엄마가 또 도망갈지 모른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그리운 소년은 꿈에라도 보고 싶어 베개 밑에 아버지 사진을 넣고 자지만 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울먹인다. 가장 끔찍한 장면은 두만강을 건너다 얼어 죽은 여인의 시체 일부가 얼음 묻힌 상태로 2주 넘게 방치돼 있는 것이었다.

탈북자 문제의 뿌리는 탈북한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가 보다는 왜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북한 땅에서 도망치는가, 무엇이 주민들을 탈출로 내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참상이 탈북 시인 장진성 씨로 하여금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라는 통곡의 시(詩)를 읊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탈북 다큐멘터리는 많은 노력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변죽만 울린, 그래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제작이었다고 평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돈 취재 결과였다.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탈북의 근본 원인인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6월 15일 밤 KBS 1TV가 방영한 ‘2008 북한의 식량 위기’에서 취급한 정도의 내용이라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팔려 온 상인으로 위장해서 간부 숙소까지 촬영한 용기와 사명감 그리고 열정에는 경의를 표한다.

탈북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쉬쉬하고 덮어갈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사실적인 북한 알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중과 방송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고난과 철쭉 같은 어둠을 극복하고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난 고통들을 용해하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화 씨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점만 다 뽑아 놓으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에서 관광객으로 일하다가 탈출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한 30대 여인인 이금희 씨는 한국에서 살기가 녹록치 않아요. 나쁜 것도 많아요. 좋다고도, 아니라고도 말 못해요”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서 살기로 결정한 벌목공 출신의 한동만 씨는 “한국에 가 눈에 나 살거면 차라리 다른 민족의 천대를 견디며 살 각오입니다”라고 했다.

중국 농부에게 팔려가 쌍둥이를 낳아 기르면서 호구(호적) 없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년 여인의 “제일 가난한 나만큼이라도 북한 사람들이 살았으며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다.

속빈 강정 ‘한·중 전략적 동반관계’



김철
· 본회 회우
· 국회의원
· 국민대 초빙교수(현)

“외교정책은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상대의 의도만 살필 때, 그 결과는 砵上樓閣이 된다.” (헨리 키신저)

한·중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strategic partner)”가 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선전은 “題目외교(무늬외교)”라고 할 수 있다. 기사내용은 다르다. 키신저가 말한 “힘의 관계”도 무시되고, ‘상대방의 의도’도 오해한 그야말로 樓閣以前이다.

힘의 관계 무시하면 砵上樓閣

아니나 다를까. 공동성명에 즈음해 중국은 한·미동맹을 비난했다. 공동성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北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은 노무현 정권의 입장과 비슷하게 정리됐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NLL을 침범했다.

전략적 파트너란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國力과 국제관계에서의 位相 및 안보의 근본방향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弱者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戰略的 파트너십의 핵심은 軍事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군사적 목표의 접합점이 없다. 물론 强者는 립 서비스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의 전략적 관계는 언젠가 강자에 의해 매우 위험하게 활용될 여지가 농후하다. 강대국간의 경우는 다르다. 美·러가, 美·中이 전략적 파트너 운운할 때는 그들이 세계질서를 공동 관리한다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

군사적 목표·국제위상 등 큰 차이 위험한 ‘題目외교’…强者가 악용할 소지 “귀신은 弱者부터 잡아 간다” 명심해야

는 면에서 가능하고도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착각이 심해졌다. “햇볕”이니 “포용”이니 하다가, “동북아의 허브” “균형자”까지 나왔었

다. 그러나 결과는 없었다.

점검해 보자. 우리가 半友好的 강국과 파트너를 自任할만한 정신적 역사적 물질적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수년전 북핵 위기가 고조, 미국이 강경책을 시사하자, 우리 대통령은 급히 北京에 가서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아마도 지난 10년간 미국은 고급군사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북이 원칙도 없이, “짜자궁”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선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중국이 불량식품을 수출해도 결과적 조치는 없었다. 성화 봉송 때 폭력으로 주권침해를 해도 결과적 조치는 없었다. 우리 수역에서 마구잡이로 어로를 해도 효과적 조치는 드물었다.

한·미 동맹도 그렇다. 6·25때 그들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미 동맹이 있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東北공정도 문제지만, 뼈아픈 朝貢의 과거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나 일본은 명과 전쟁을 했다고 略述하고 있다. 고려 때 麗·蒙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지만 일본은 몽고와의 전쟁으로 악살하고 있다.

中·日만 있고 ‘우리’는 없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 일각에서는 日·淸 전쟁으로 고종이 황제를 칭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 實相이 그러하고 과거의 實相이 그러했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성찰하고, 외교의 절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19세기 독일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는 戰略的 節度の 전형이다. 먼저 프랑스를 견제해놓고 오스트리아를 쳤다. 다음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英·佛간의 불화와, 남부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야심을 역이용해 프랑스를 쳤다. 1938년 히틀러는 뮌헨회담을 통해 체코를 삼켰다. 그 때 외교가에 나돈 말이 있다. “귀신은 약한 者부터 잡아간다.”

동아일보 | dongA.com

Anniversary
88

동아일보 88주년,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한 줄기 빛이 되길 원했던 신문,
독자의 사랑을 바람막이 삼아
새벽을 헤치며 달려온 지 88년.
창간의 초심을 가슴에 품고
역사의 나이트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1920.4.1 창간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

新東亞

주간동아

여성동아

과학동아

어린이
과학동아

DongA
Business Review



철이 있어 도시도 사람도 더욱 깨끗해집니다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곳의 중심엔 철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때로는 무공해 교통수단이 되어
우리의 도시를 더욱 맑고 푸르게 가꾸어 갑니다.



태양과 철이 만난 태양열주택



사람과 철이 만난 자전거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오늘을 가꾸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바가지 판치고 인파 북적대는 휴양지엔 왜 가? 洗心…洗足… ‘선비처럼 여름나기’

어디로 떠날까?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을까? 피서철이면 늘 하는 걱정이다. 유명 관광지과 바다는 인파로 붐비고, 휴양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게 흠이다. 댕 고을 담양의 죽녹원에 들러 죽림욕을 하고, 식영정에서 여백의 미학을 누리려 보자. 양수리 세심원에 들러 마음을 씻고, 수종사 삼정헌서 녹차를 마시며 남한강을 굽어보면 무더위는 저만치 달아난다. 가평 용추계곡에 발을 담그면 서늘한 기운이 전류처럼 온 몸에 퍼진다. 선비처럼 여름을 날 수 있는 피서지 3곳을 소개한다.

“悠悠自適” 골라 본 이색 피서지 3곳

숲에서 파도소리 들리네

#담양 죽록원 = 전남 담양군청에서 운영하는 죽록원(竹綠苑)은 16만㎡ 부지에 늘 푸른 대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서 마음까지 서늘해진다. 대숲을 스쳐온 청량한 바람이 귀를 맑게 씻어주고, 은은한 죽향이 온 몸을 감싼다. 짙죽 뻗은 대나무는 초록 장대비처럼 싱그럽고 푸른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엔 초록빛이 묻어난다. 댓바람은 더위는 물론 세상시름마저 잊게 해 준다.

죽록원에는 ‘철학자의 길’ ‘운수 대통령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등 재미있는 이름의 테마 산책로가 8곳이나 된다. 느릿느릿 걸으면 죽록원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2시간 남짓 걸린다.

산책로 중간 중간에 인공 폭포와 정자, 우마차, 팬더 모형 등 지친 다리를 쉬어가거나 사진 찍기 좋은 곳도 많다. 죽록원에는 검은 빛을 띠는 오죽을 비롯하여 30m 높이까지 자라는 맹종죽, 대나무 표면에 흰 분칠을 한 분죽, 조릿대 등 국내에서 자생하는 7종의 대나무를 볼 수 있다.

죽록원의 홍살문을 나서면 담양천 제방을 따라 조성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 노거수가 열병식 하듯 늘어서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조선 인조 때 담양부사 성이성이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요즘은 나그네의 쉼터구실을 톡톡히 한다.

일상 접고 여백의 쉼표를

#식영정과 소쇄원 = 담양군 남면에 위치한 식영정(息影亭)은 광주호를 발끝에 거느리고 성산(星山)을 마주한 언덕에 고매한 선비처럼 동지를 틀고 있다. ‘그림자가 쉬어 가는 정자’란 이름의 식영정 뒷마루에 앉아 광주호 푸른 물을 바라보노라면 쫓기듯 살아온 일상을 잠시 접고 여백의 쉼표를 찍을 수 있어 좋다.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에 한 칸짜리 서재와 뒷마루가 운치 있는 식영정은 1560년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이 그의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林億齡)을 이곳에 머물러 쉬도록 지었다. 식영정 아래엔 현대식 정자 부용당이 있고, 그 뒤는 김성원이 살았던 서하당터다. 식영정으로 오르는 길에 ‘송강 정철 가사의 터’라 쓴 돌비석은 이곳이 성산별곡의 탄생지임을 알려준다.

식영정을 나와 광주호로 흘러드는 광주천을 건너 계단을 오르면 환벽당(環碧堂). 송강이 벼슬길에 나가기 전 10여 년 간 머

무르며 공부하던 곳이다. 뉘싯대를 드리우고 세월을 뉘었다는 조대(釣臺)가 낙락장송 아래에 있다.

환벽당 부근에는 취가정(醉歌亭)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취가정 마루에 앉으면 꽃꺾어 수놓으며 술을 마셨다는 송강의 취흥 풍류가 절로 떠오른다. 광장 앞 가시문학관에는 송순의 면앙집,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 1,300여점의 귀중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식영정에서 887번 도로를 타고 화순방향으로 2km 가면 소쇄원(瀟灑園).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탁월한 건축공간으로 한국 정원의 특색을 잘 보여 준다. 계곡, 연못, 대숲, 바위, 새소리, 물소리까지 자연 그대로의 풍취가 오롯이 담겨있어 더위를 잊게 한다.

▶먹거리 = 담양에는 죽(竹)요리와 대나무통밥, 떡갈비를 잘하는 식당이 많다. 1인분에 대통밥은 8000원, 떡갈비는 1만

죽향 가득한 담양엔 쉬어갈 정자도 많아 서울 인근 양수리… ‘꽃과 물의 정원’이 水鐘寺 삼정헌은 詩 仙 茶가 하나되는 곳

2000~1만5000원, 죽순회는 1만5000원 안팎이다.

연잎에 올린 찻잔을 띄우고

#양평 세미원과 석창원 = 선비처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꽃과 물의 정원’ 세미원(洗美苑)과 석창원(石菴苑)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어 도도히 흐르는 양평의 두물머리에 위치해 서울서 가깝다. 7월부터 앞다투 피기 시작하는 맑고 고운 연꽃을 무심히 바라보면 더위는 저만치 달아난다.

석창포(石菴蒲)가 운치를 뽐내는 석창원은 풍류가 넘친다.

구불구불한 인공하천을 만들고 20여 개의 대나무 의자와 소반을 놓은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의 공간이다. 찻잔을 연잎에 올려 물에 띄워 보내며 시 한 수씩 읊는 전통문화를 재현한 것은 대단한 풍류다. 자연과 관련된 3000여 권의 책이 구비돼 있어 도서관 구실도 한다.

세미원과 석창원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물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이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觀水洗心 觀花美心)’에서 따온 이름이다. 생명사랑과 연꽃을 통해 자연치유의 지혜를 모은 꽃과 물의 정원에서 더위를 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환경 희망’을 발견한다. 인터넷 예약은 필수. 전 구역이 금연. 음식물 반입도 안 되고 사진촬영도 못한다. 구두



이 규 섭

- 본회 편집위원
- 국민일보 논설위원
- 칼럼니스트

나 하이힐은 석창원 입구에서 고무신으로 갈아 신어야 한다.

서거정이 ‘동방 사찰 제일의 전망’이라고 격찬한 수종사(水鍾寺)가 가깝다. 시(詩), 선(禪), 차(茶)가 하나 되는 다실 ‘삼정헌(三鼎軒)’에서 차를 음미하며 남한강을 굽어보면 신선이 따로 없다. 차 값은 받지 않지만 시주함에 알아서 넣으면 된다.

자녀와 함께 갔다면 서울종합촬영소도 꼭 들르자. 수종사에서 6km거리다. 야외 세트장과 영화문화관, 영상지원관, 영상원 리체험관 등 부대시설을 갖춘 한국의 ‘시네밸리’다. 무료로 영화도 볼 수 있다.

▶먹거리 = 양수리 주변에 매운탕, 순두부, 백숙, 장어구이 등 먹을거리가 푸짐하다. 유기농 농산물 웰빙 쌈밥 1인분 8,000원.

계곡에 발 담그면 온 몸 ‘찌릿’

#가평 용추계곡 = 선비체면에 물속에 풍덩 뛰어들 수 없다면 세족(洗足)으로 더위를 쫓는 계곡이 제격이다. 여름 산이 품은 푸르고 호젓한 계곡 가운데 당일치기 코스로 적당한 곳이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이다. 용이 승천하면서 빗었다는 아홉 굽이 비경이 여름의 열기를 단숨에 삼켜 버린다.

용추폭포 부근은 사람들로 붐벼 물 맑고 호젓한 곳을 찾으려면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 비포장 길이 시작되는 곳은 구슬처럼 맑은 물이 바위에 부딪칠 때마다 보석처럼 흩어지는 ‘탁령보’부터다. 가평 잣으로 유명한 잣나무 숲이 뻗뻗하고 신갈나무와 산대나무 군락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산림욕 하기도 좋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숲이 뿜어내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시린 물에 발을 담그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난다.

▶먹거리 = 민박이나 펜션에서 닭도리탕과 닭백숙을 판다. 가격은 4만원 안팎. 과일 등 먹거리를 챙겨 가는 게 좋다.



‘꽃과 물의 정원’ 양수리 세미원



수종사에 오르면 남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아홉 굽이 절경을 빚어 놓은 가평 용추계곡

회유수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 첫 번째는 70대 중반인데도 문화재 쪽(통역·안내 등) 취직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사(06년도)고, 두 번째는 고든 캠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가 노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정년퇴임을 법으로 금지키로 했다(06년도)는 기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션브리즈 파크시티 시장선거에서 96세의 도로시 기번 할머니가 재선돼 (04년도)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다는 기사다.

말과 글이

장년이 가까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글을 읽을 때 크게 한번 숨을 쉬고 열을 떨 것이다. 참으로 생명수 같은 기사 그 중에서도 96세 할머니가 시장에 자기는 상상이외의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좋은 보약, 좋은 장수식품을 먹은 것보다 기가 나고 마음에 날개가 돋을 것 같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가끔 “회개하라, 이라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라” “지옥”같은 명령적이



양수리 세미원 전경.(세미원 제공)



강이 그림처럼 펼쳐진다.(이규섭 회우)



여 놓은 가평 용추계곡.(가평군청 제공)

“잘 다녀 오셨어요, 이번엔 싸우지 않으셨나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아내가 딸네 집에 전화했더니 사위가 받으면서 하더라 얘기다. 작년 여름 북유럽 4개국 여행 때, 너무 강행군 하는 바람에 아내가 짜증을 낸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다.

공사별로 요금이 자세하게 떠오른다.

로마로부터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도시 간 이동은 열차 편을 이용하기로 하고, 유레일 이탈리아 1개국 패스 2등 4일권을 샀다.

호텔은 별 3개짜리를 기준으로 중앙역 주변에 있는 것을 골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우처(숙박권)를 프린터에서 뽑았



이 현 구

- 본회 논설위원
- 조선일보 부국장
- 서강대 대우 교수

패키지 족쇄 풀고 ‘자유여행’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내와 나는 둘 다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여행 각론에 들어가면 취향에 다소 차이가 난다. 나의 경우 정해진 일정에 최대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이 보자는 주의다. 주택가 뒷골목, 밤거리의 선술집, 시장바닥 같은 데 들어가 그곳의 사람냄새를 맡으며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잠자리와 먹는 데는 큰 비중을 안 둔다.

‘많이 보자’와 ‘느긋’ 취향

그런데 아내는 일정을 줄일망정 반듯한 호텔에 묵고, 맛있는 것 찾아 먹어가며 경치도 즐기면서 느긋하게 지내지는 편이다. 어쨌거나 우리 내외의 취향에 패키지여행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작년 7순 기념 여행을 계기로 자유여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탈리아 일주로 방향을 잡았다. 나는 10여년 전에 로마와 나폴리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내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이탈리아를 못 봤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 이탈리아의 5대 도시인 로마,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에서 각각 이틀씩 묵기로 계획을 짰다.

앞당겨 서두르면 비용 절감

5월 6일 출발인데 서둘러 3월 중에 준비를 마쳤다. 호텔이나 비행기 표를 몇달 앞서 예약하거나 예매하면 싸기 때문이다. 비행기 표는 인터넷을 뒤져서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하여 로마로 입국했다가 밀라노에서 나와 도쿄를 거쳐 귀국하는 JAL할인항공권을 1인당 90만7,300원에 구했다. 여행사 사이트의 할인항공권창에 들어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운항 항



바티칸 박물관 안의 솔방울 정원에 선 필자 부부.

다. 중앙역 주변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개 변화가와 이웃해 있어 밤거리 관광에도 제격이다. 유럽의 호텔 숙박료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번 여행에서 로마 호텔은 투윈

아내와 함께 로마·나폴리 등 이탈리아 5대도시 일주 비행기·호텔 등 예약·예매 모두 인터넷으로 간단히

룸 1박에 175유로 (당시 환율로 27만 6,850원)를 냈는데, 밀라노에선 같은 별셋인데도 81유로 (12만 8,140원)로 반값도 안됐다. 컴퓨터는 정말 요물이다. 예약하고 예매하는 모든 일이 컴퓨터 앞에서 손쉽게 이루어졌다. 비행기 표는 탑항공(toptravel.co.kr), 호텔은 호텔패스(hotelpass.com), 기차표는 유레일(eurailpasskorea.com), 기차시간 확인은 이탈리아 철도(trenitalia.com) 웹 사이트로 들어갔다. 나폴리에서 카프리로 가는 페리의 시간표와 요금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capri.net). 사이버 환전을 하면서 환율 우대까지 받았다.

이번 여행에서도 많이 쏘다녔다. 나폴리에서 배 타고 카프리에 들어갔다가 소렌토로 나와 폼페이를 거쳤다. 이튿날 피렌체로 가면서 피사의 사탑을 보고, 베네

치아에서 밀라노로 가는 길엔 줄리엣의 집이 있는 베로나에 들렀다. 밀라노에 머물 때는 스위스 접경의 호수도시 꼬모를 다녀오기도 했다.

피렌체의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관람은 로마에서 전화예약을 해 가능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밀라노의 산타마리아델레그라치에 교회는 예약이 안 돼 현장 건물을 보는 것으로 자족했다. 스칼라 극장은 공연 일정이 맞지 않아 극장 내부와 박물관만 둘러보았다. 그나마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저녁에 열리는 교회 음악회를 들은 것이 위안이 되었다.

명승지·명소 내마음대로

자유여행이 점점 느는 추세란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우리도 ‘대전 찍고, 광주 찍고’식의 走馬看山적 패키지 여행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자유여행의 비용이 패키지보다는 더 든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짜낸 여행사의 자유여행 상품보다는 싸면서 훨씬 알차고 편안한 여정을 보낼 수 있다는데 매력에 있다.

과 글에 ‘희망 메시지’를

은 공통적으로 이런 기사 숨을 쉬고 얼굴에 웃음 빛수 같은 기사들이다. 니가 시장에 재선됐다는 것과 희망을 주고 있다. 품을 먹은 것보다 더 생 돈을 것 같다. 꿈 “회개하라, 불신지옥”고 다니는 사람들을 불 같은 명령적이거나 극단

적인 말과 글 보다는 “회개하고 믿으면 천당” 정도로 무엇인가 희망의 여운이 엿보이는 긍정적인 말과 글은 어떻게 생각된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성공이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요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99% 실패하기 일쑤라고 보겠다.

‘인간의 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갈 길을 택해 가고 있다. 그리고 각자가 정한 희망봉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 희망봉에 도착하지 못



이 선 희

- 본회 논설위원
- 경인매일 논설위원
- 펜클럽한국본부 회원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정진해야 한다. 그 래야 살아서 할 일을 다 한 결과가 된다. 이럴 때 도 희망을 주는 말은 소금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희망을 준 결정적인 말이 있다. 어느 날 K사 박 전무는 아들 때문에 고민을 했

다고 한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저는 머리가 아파 도저히 고등학교를 못가겠으니 돼지 몇 마리만 사 주십시오...”라고 해서 박 전무는 고민 끝에 아들의 부탁대로 시골 외가 쪽에 돼지 키울 땅과 돼지 몇 마리를 사주고 잘해 보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돼지를 키우는 희망찬 꿈은 곧 나아가서 기업 경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기 싫은 공부보다 하고 싶은 돼지 사육은 그 아이의 앞길을 바로 인도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보겠다.

어쨌든 희망을 주는 말과 기사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아닐 수 없다.

한국문학 스토리텔링의 부흥 예고

書舍餘話 ③



진시황 프로젝트 유광수 장편소설(김영사刊)



유한준

· 본회 회우
· 소년조선 취재부 차장
· 아동문학가



제 1회 대한민국 뉴웨이브 문학상 수상작 '진시황 프로젝트'.

‘진시황 프로젝트’는 잔인한 연쇄살인극의 뒤범벅이다. 중국 진나라 초대인 시황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200여년의 세월을 넘나든다. 중국 일본 유럽까지를 무대로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서스펜스(Suspense)가 다이내믹(Dynamic)하게 펼쳐지면서 스킬이 넘쳐 흐른다.

명성황후·고종황제 리바이벌

백주에 서울의 심장 광화문에서 사람의 목을 칼로 잘라 가방에 넣고 유유히 잠적하는 Y대학 교수.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영국 RLB 스티븐슨의 중편소설)를 연상시키는 서 교수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비디오로 촬영해 방송국으로 보내는 치밀함, 경복궁으로 난입하는 왜군들의 군화소리, 명성황후의 서릿발 같은 목소리, 춘화를 그린 고종황제, 죽은 신혼부부를 화장(火葬)하고 엉터리 보고를 하는 강력 8반 형사...모두가 리바이벌(Revival)하게 조명되지만 비정상적이다. 스토리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 너무나 허구적이고 잔인하다는 느낌에 전율한다.

하지만, 주인공 한 두 사람쯤은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역사추리소설 새 패턴 선보여

순리와 정의를 외면한 채 생사를 넘나드는 숨 가쁜 추적, 진시황 프로젝트의 정체, 고종황제의 춘화첩, 국제 범죄단의 종횡무진, 송곳 길러 채소연의 실체, 신흠 신부 소연을 총살시키고 자살하는 휠체어 신랑 권

시공 넘나든 스킬...엽기·잔혹 범벅

불과 24일로 압축된 ‘장구한 세월’ 경이적

史實+현대적 이슈의 방대한 서사시

BC 221년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했던 시황제를 부활시켜 동아시아를 제패하려는 거대한 음모,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이슈와 결부시켜 방대한 서사시(敍事詩)로 엮어 박진감을 더해 준다. 하지만 현실성을 일탈한 허구, SF공상추리소설 같은 스토리, 극단적 대립 등이 적나라하게 난무한다. 인간생명의 존엄성마저도 가차없이 내던진다. 물고 물리는 혼선의 거둬, 질투와 반목, 애증과 번민이 리얼하게 교차한다.

주연·조연 없이 모두가死者로

작품 구성이 탄탄하고, 소설적 재미와 역사적 무게가 있으며, 마지막 극적인 반전도 특이하다. 만연체 문장, 속도감의 지루함 속에서도 격변하는 시대상을 성찰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수많은 인물들이 부상한다. 중심인물도 없다. 파고(波高)처럼 떠올랐다가는 사자(死者)로 떠밀려간다. 진시황도 끝내 부활시키지 못한다.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 애매모호하다. 박진감의 극대화도

도빈의 매물참...갱들의 생존경쟁과 끝없는 비밀의 터널이 암울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난해한 사건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건의 열쇠를 강 형사가 찾아낸다.

한국 문학 스토리텔링의 부흥을 예고하는 거침없는 상상력의 야심작 진시황 프로젝트는 ‘송곳’ ‘황제의 비밀’ ‘남은 자의 의무’ 등 3부와 에필로그로 나눠 장구한 세월을 불과 24일 속에 압축판으로 엮어 놓았으니 실로 경이로운 역작이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세계문학의 관심사에 촉수를 들이대며, 범세계적인 주제를 역사추리소설이라는 새로운 패턴에 담은 역량 있는 작품”이라고 심사위원 일동은 절찬(絶讚)하고 있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희박하고, 해피엔딩도 아닌 절망과 비극으로 종결(終結)된다. 독후공허(讀後空虛) 속에 중량감이 스며든다.

조선일보 현상모집 제1회 대한민국 뉴웨이브 문학상 수상작. 유광수 장편소설. 김영사 발행. 540p. 값 12,000원.

정진석 교수 力著<대한매일신보와 배설>

日 晃洋書房서 일어판 출간

정진석 한국의국어대 명예교수(본회 명예회원)의 저서 <대한매일신보와 배설>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7년에 나남출판사에서 첫 선을 보인 뒤 2002년에는 한국학술정보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전자책(e-book)으로 중간(重刊)했으며 이번에는 일본의 고요쇼보(晃洋書房)에서 일어판을 내게 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국운이 기울던 시기에 영국인 배설(裴說: E.T.Bethell)이 발행한 대한매일신보의 항

일 논조를 꺾기 위한 일본의 탄압, 발행인 배설의 처리를 둘러싸고 영국과 일본이 벌인 외교 교섭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내의 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 등의 민족운동은 이 신문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일어판의 제목은 <대한제국의 신문을 둘러싼 일영분쟁(大韓帝國の新聞を巡る日英紛争)>으로, 번역은 류우고쿠대학(龍谷大學) 이상철(李相哲) 교수가 담당했다.

건강단신

노인성 치매 새 치료물질 개발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 신경섬유 엉킴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었다.

미국과 유럽 4개국의 과학자 29명이 공동연구 끝에 개발한 이 치매 치료 신물질은 감마 세크레타제 조절인자(GSM)라고 불리는 것으로 종래의 치료제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효소 또는 단백질 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이 단백질의 구조 자체를 공격한다. 연구팀의 일원인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신경과학자 토드 골드 박사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구조적으로 사슬이 긴 장쇄(long chain)와 짧은 단쇄(short chain)가 있고 장쇄는 서로를 엉키게 하고 단쇄는 이를 억제하는 데, 이 신물질은 장쇄를 감소시키고 단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다.<연합>

중국 술서 암유발 감미료 검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류 21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일부 중국산 술에서 발암 논란으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연합>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

老 기자, 다시 취재현장에

이 두 석

- 본회 회우
- 중앙일보 사회부장
- 문화일보 편집국장

옛 직장 중앙일보 객원기자 컴백

취재 일선을 떠난 지 얼마만인가. 졸잡아 20년을 넘는다. 그런 ‘퇴물’이 70고개를 넘은 올해 다시 현장에 섰다. ‘중앙일보 시니어 리포트 팀’의 ‘객원 기자’ 신분으로… 기대와 실망이 엇갈렸다. 일자리를 얻은 것은 요행이다. 하지만 고작 두 달간 ‘알바’라니 신세가 처량했다. 43년 전 울창이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딘 곳, 중앙일보가 일거리를 제공했다.

퇴직한 노령자 재고용과 정년연장 실태를 집중 취재하는 프로젝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획물. 중앙일보 출신 60, 70대 ‘늙은 기자’ 6명이 직접 현장을 뛰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60 70’ 고령자를 인터뷰해 기사를 썼다. 6월 3일부터 6일까지 4회 시리즈로 중앙일보에 보도됐다. 어깨 제목은 ‘은퇴기자 흠 커밍 리포트- 다시 뛰는 실버’ 현장취재가 솔직히 두려웠다. 할 수 있을지 망설였다. 심기일전.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다시 뛰었다. 해볼 만했다. 보람도 있었다.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 ‘늙은 기자’도 ‘젊은 기자’ 못지않게 해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어려움도 없지않았다. 대기업일수록 ‘노조와 현직’의 눈치를 살피며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청업체 용접공 노인의 자부심

취재 현장은 울산광역시 온산공단. 선박목체 만드는 중소 규모 조립공장 ‘창우산업’이다. 1500여 평 작업장에 들어선 컨테이너 사무실. 그렇고 그런 하청 공장이었다. 하지만 ‘노인들만 일하는 기업’으로 세간에 널리 소문났다. 100여 명의 종업원이 모두 ‘60 70 고령자’다. 평균 연령 67세. 정년도 없다. 임금은 졸잡아 200만 원. 노인들의 수입으로는 만만치 않다.

석가 탄신일인 5월 12일. 휴일인데도 공장에는 용접 불꽃이 날고 있었다. 역센 경상도 사투리가 작업장에 넘친다. “요새 60은 노인 아이 제. 경로(경로당)에도 쏘사리 못 낀다 카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기억수 로 좋은 기라. 늙은 할망구 잔소리 안 듣는 것이 어딘데. 지손으로 벌여 묵고 살 제. 손주 놈들 용돈 줄 때 허뿔하데이.” (김성곤 68세, 글라이딩 경력 35

년). “돈도 돈이지만 늙어서 일할 수 있는기 얼마나 좋은지. 몸만 성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제. 정년 걱정 없어. 쫓아내지 않으면 80세까지 일할 기라. 용접 불꽃처럼 살건데” (김성광 66세, 용접기술 경력 36년). 노인기업 창우산업 사장 김창원 씨. 올해 72세. 배 만 드는데 이골이 난 전문 기술자다. 조선소 밤만 42년을 먹었다. 울산 현대 중공업 출신이다. 1973년 들어가 21년 만인 1994년 정년퇴직했다. 나이 들었다고 밀려나니 억울했다(정년 58세). 한창 일할 수 있는데 애써 익힌 기술을 썩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자존심을 잡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상책

4~5년 동안 같은 처지의 은퇴 고령자 3~4명이 팀을 만들어 선박불록을 만들어 납품했다. 입소문이 나자 정년으로 밀려난 은퇴고령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일거리가 모자랐다. 그래서 아예 공장을 차려 일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001년 봄 현대중공업 옛 동료 10여명이 합쳐 창업했다. 퇴직금은 물론 비자금



신발 끈 조여 매고 현장 취재에 나선 필자.

“노인 위한 나라·기업 없다” 확인

다시 뿔 현장에서 퇴물 기자가 얻은 교훈은 절절하다. 노령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에 적극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노

두 달 ‘알바’로 고령자 재고용실태 살펴 60 70 ‘삼모작 인생’들의 애환報道 보람

을 털어 넣었다. 공장이 돌아가고 일감이 늘어나자 퇴직한 고령 숙련기술자를 더 많이 고용했다. 창업당시 10명이던 종업원이 7년만에 10배로 늘었다. 지난 달에는 마산공단에 계열사(?)의 문을 열 정도로 사세가 확장되었다. ‘노인기업’ 김 사장의 메시지는 이렇다. “이제 인생은 3모작입니다. 2050년에 한국 인구는 젊은이와 늙은이가 반반이 됩니다. 누가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것입니까. 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먹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3년전 2005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0년 후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노인 인구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가 된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일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

인을 위한 나라도, 기업도 없다” 는 게 현실이었다. 청년 백수도 골치 아픈데 노인들의 일자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은퇴 노령자 스스로 노력해야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아 옛날이여’해 봤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큰 돈에 대한 욕심도 접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와 임시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일자리가 생긴다. 사회의 냉대에 대한 노여움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은퇴한 ‘늙은 기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쓴 소리 한 마디 하겠다. 품 잡고 뒷방에 모여 앉아 불평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백발이 성성한 노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는 구미 언론계를 본받아야 한다. 주특기를 살려 ‘다시 뛰는 실버’로 자리매김 하자. 인생은 ‘60 70’ 부터다.

겨레와 인류의 빛이 된 인물 이 분들께 2008 호암상을 드립니다



科學賞
金必立

1967년생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그레핀에서 반정수배 양자홀 효과를 세계 최초로 관측하고, 전자 및 홀의 유효 질량이 '0'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



工學賞
承現峻

1966년생
미국 MIT 교수

비음수 핵열분해(NMF)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뇌 신경계의 정보처리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컴퓨터 구현의 토대를 마련



醫學賞
찰스李

1969년생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인간 유전체에 단위반복변이(CNV)라는 구조적 변이가 존재함을 최초로 발견하여 인간 유전체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藝術賞
禹圭昇

1941년생
건축가

단순하고 절제된 美, 자연과 환경·삶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 개성있는 건축물로 예술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건축가



社會奉仕賞
聖家福祉病院

1990년 설립
(대표 김복기 수녀)

1990년 무료병원으로 전환 설립되어 소외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등 희생적 봉사 정신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

2009 호암상 공고

1. 시상부문

구분	대상	시상내용
과학상	기초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상장 및 상금 각 2억원
공학상	공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의학상	의학 및 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예술상	예술분야에서 창작, 발표, 연구등을 통하여 예술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인사	
사회봉사상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인사	

2. 수상후보의 자격

- 한국인 및 한국계 인사
- (단, 사회봉사상은 국내외에서 한국을 위해 업적을 이룩한 외국인 포함)
- 추천마감일 현재 생존해 있는 인사

3. 후보자 추천인

- 호암재단 임원 및 호암상위원회 위원
- 본 위원회에서 추천인으로 위촉하는 분 (학술, 예술, 사회 단체의 장 및 전문인사)
-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상의 수상자
- 호암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분

4. 구비서류

- 추천서 (본 위원회 소정 양식)
- 업적 증빙 자료
-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 대표논문 1편 및 관련논문 5편 이내
- 예술상, 사회봉사상 : 주요업적 증빙 자료

5.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년 11월 30일(일)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20층 호암재단 호암상위원회 (우 : 100-716)
TEL : 02)2259-7884 ~ 7, FAX : 02)2259-7883
- 인터넷 접수 : www.hoamprize.org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요서류 및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표 : 2009년 4월
- 시상 : 2009년 6월 1일

호암재단 호암상위원회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는 땅에 살고 있다
땅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생각을 움직였다

[SK에너지는 세계 16개국 30개 유전개발로 우리 영토를 바꿔갑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땅에 살아도 우린 산유국입니다.

SK에너지는 브라질, 페루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영국 북해에 이르는 30개의 유전을 개발하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나의 취재備忘錄



총무로의 전설 (下)



김 화

- 본회 논설위원
- 경향신문 편집위원
- 영화평론가

영화도 ‘호스티스 멜로물’ 판처

앞글 -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품격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품격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계급을 표현해 신분을 구분하는 말들을 혐오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칭 상류사회 부유층의 존재적 허영과 윤리적 사치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탐욕스럽다는 것을 기자생활을 통해 실증적으로 인식했다. 정치인들과 신흥재벌들과

산업화의 뒤뜰에 핀 꽃 비밀요정

그들의 2세와 졸부들은 젊은 여자 연예인과 노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신분 상승 확인’으로 착각하는 시대였다.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이 숨차게 달렸고, 사회 뒷면에서는 비밀요정과 칠공자클럽과 박동명 리스트의 풍류가 풍미하던 시기였다. 영화도 호스티스를 내용으로 한 멜로물이 흥행의 주류를 이뤄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을 출발로 해서 막판에는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 ‘0번 아가씨’ ‘77번 미스 김’ 같은 제목이 난무했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로도 기존 문화가 해체되고 인간 본능의 해방을 추구하는 탈 권위, 탈 제도문화가 분출하는 시기였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고, 육체의 신 마릴린 몬로가 자살하고, 비틀즈가 해체되고, 베트남전이 종료되고, 반체제 운동과 히피가 무섭게 휩쓸던 시기였다. 특히 히피문화는 일체의 권위 계급 전통 체제를 거부한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한 무소유의 행동문화로 서구사회를 진동시켰다.

재벌 2세, 여 탤런트 행적 탐색

지난 시대 어쩌면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비밀요정에 얽힌 에피소드 몇 개를 소개한다.

신 1 - 재벌 2세가 비밀요정을 섭렵한 진짜 이유

날씬하고 미남인 재벌 2세 P는 연희동과 한남동의 물 좋기로 소문난 비밀요정을 일과처럼 찾았다. 돈 있고 잘 생긴 용모에 적당한 바람기까지 있는 P의 비밀요정 출입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 너무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다. P는 가는 곳마다 마담에게 “탤런트 A양을 불러 달라”고 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데려와 달라 고만 했다. 마담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여배우나 탤런트는 부를 수 있지만 A만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어느 비밀요정을 가도 마담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그때 P는 소문 없이 A양과 연애 중이었다. 그리고 연예인답지 않는 소박함에 이끌려 결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다. 모든 조건은 초월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마



영화속 룬 살롱의 한 장면.(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정치인·졸부들의 탐욕스런 ‘연예인 취향’

칠공자클럽·박동명 리스트 식 풍류 활개

빛과 그늘...갓가지 에피소드 양산

음에 걸리는 것이 비밀요정 출입여부였다. P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마다 비밀요정을 찾아갔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P는 A양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에게 이어 최고 경영자에 오른 P의 기업은 몇 년 후 대기업 명단에서 사라졌다.

#신 2 - 비밀요정 대모 아들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스타덤에 오르기 전의 신인 여자 탤런트 L은 비밀요정의 대모라는 M마담이 운영하는 연희동의 요정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 요정은 12·12 사태 때 전두환의 신군부가 반대파 장성들을 묶어둔 장소로 유명한 집이다. 1970년대의 M마담은 웬만한 신인 여배우 여가수 여탤런트를 휘하에 거느리고 있을 만큼 연예계에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휘하의 아가씨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키기도 하고, 막 뜨는 신인 여자 연예인을 손님들이 요구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집에 출연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 M여인을 취재하기 위해 만나려다가 모 수사기관 직원에게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인 탤런트 L은 밤에 이 집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M마담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당시 L의 동료 탤런트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다. M마담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다.

사랑의 열병을 심하게 앓고 난 L은 연기에 열중해 스타가 되었다. 그녀는 사랑을 잃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

신 3 - 박동명 리스트 때문에 희생당한 연예인들
영화사의 신인 여배우 공모에 수 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뽑힌 K는 크랭크 인을 앞두고 한창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처참하게 좌절되었다.

수사관이 박동명의 아파트에 갔을 때 단지 그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찍히고, 심지어는 비밀요정 출신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여자 연예인들 사생활 도마에

대중들의 막가파식 비난이 K에게 쏟아지자 영화사는 그녀의 출연을 취소했다. 스타 탄생의 꿈을 허무하게 접은 K는 풀이 죽어서 나를 찾아왔다. “내일 일본으로 떠난다”면서 마지막 인사차 들렀다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에게 일본행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하러 일본에 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로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심경을 2쪽 기사로 주간경향에 썼다.

또 정상의 탤런트 Y는 박동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 C일보에 게재됨으로서 브라운관에서 하차했으며, C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은 정치인 변호사의 중재로 취하됐다.

1970년대의 한국사회는 빛과 그늘, 긍정과 부정, 윤리와 욕구가 처음으로 충돌하는 시기였다. 갈등과 모순의 극복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자유는 발전한다. 다만 무한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한계는 숙제로 남긴 채.

요즘...



회우동경

· 가나다순



· 박기병(朴基秉)회우 (전 강원민방 사장)=6월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육군 76사단 123연대에서, 6월 26일에는 육군 2사단 32연대에서 ‘국가안보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7일엔 육군 3군단 115공병대대와 3군단 도하부대에서, 5월 28일에는 육군 76사단 수색대대에서 같은 주제로 특강을 한바 있다.

· 이경남(李敬南)회우 (한국발전연구원장)=6월 1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金東吉 연세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한국 현대사와 자유의 의미’를 연제로 제160회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 이용권(李容權)회우 =6월 2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덕양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 개원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공인 교육기관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수여한다.



· 이태교(李太敎)회우 (서울 부동산포럼 회장·서울 사이버대학 석좌교수)= 6월 24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남원시청 공무원과 지역유지 3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고 홍종인 선생 10주기 추모식

한국산악회는 고 홍종인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6월 10일 용인 공원묘지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홍 선생은 조선일보 기자로 입문한 이후 평생을 언론계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대기자 흥박’이란 애칭으로 필명을 날렸으며 또한 한국산악회 3대 회장을 맡아 산악회의 기초를 다져 산악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을 받기도 했다.

言論街



경향신문 새 사장 이영만씨



경향신문은 5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영만(56) 대외협력 상무를 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사장은 의결 정족수 주식의 79%가 참석한 임시 주총에서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사장에 추대됐다. 이영만 차기 사장 임기는 6월 12일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2년이다.

유재천 교수 KBS 새 이사장에



유재천(70)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특임 교수가 KBS 이사회의 새 이사장이 됐다. KBS 이사회는 6월 5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 김금수 전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사회에 유 교수를 선출했다. 이사회 측은 “규정대로 호선을 통해 유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 사장 양휘부씨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양휘부(梁輝夫.65)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 문화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 후보로 신청한 10명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추천 절차를 거쳐 양 전 방송위원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검찰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사의뢰서 및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농식품부와 PD수첩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어떤 경위로 취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식품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보건, 의학 전문 부서인 형사2부에서 수사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생방송 중 실수 인정

MBC TV ‘PD 수첩’이 오역 시비에 대해 해명했다. PD수첩은 4월29일 방송에서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왜곡 편집, 광우병 과담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촛불시위를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PD수첩은 아레사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CJD(크로이츠펔트야콥병)라고 말한 것을 vCJD(인간광우병)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진성호, 김용태 의원 등은 “PD수첩이 최악의 왜곡방송을 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PD수첩을 검찰에 고소했다. 6월 24일 PD수첩 진행자 송일준 PD는 “지난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나온 후 후속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방송 중 나온 실수였다”면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우회소식



국민일보 퇴직사우 모임인 ‘국민일보 미디어클럽(KMC)’ 창립총회.

전직 사우들 모임 ‘국민일보 미디어 클럽’ 창립

초대 회장 함정훈 전 전무



국민일보 퇴직사우 모임인 ‘국민일보 미디어클럽(KMC)’이 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우봉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민일보 미디어 클럽’은 창립총회에서 함정훈 전 전무이사(사진)를 초대회장으로, 안태용 전 편집국장과 전원표 전 광고기획부장을 감사로 선

출했다.

함정훈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미디어 클럽은 올해 12월 창간 20주년을 맞는 국민일보에 힘을 보태는 한편, 사우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이 함 회장에게 사우회기를 전달했고, 조용우 초대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민제 사장이 축사를 했다.

한편 총무이사 겸 사무국장엔 창립준비위원장으로 미디어클럽 산파역을 맡았던 이규섭 전 논설위원(본회 편집위원)이 보임됐다.

경향사우회, 이형균 회장 추대



경향신문사우회는 6월 20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형균 전 편집국장을 제7기 사우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지용우 전 회장(본회 논설주간)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신임회장은 한국프레스센터 전무이사, 한국 PR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으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 관악언론회 회장직을 맡고있다.

회보가 나왔습니다

- ▶京郷社友會報(발행·편집인 池龍雨) 38호=6월 3일자. 타블로이드 8면 발행.
- ▶西小門舍廊(中央매스컴社友會報·발행인 李根諒) 127호=5월 23일자. 국판 4면.

자. 국판 4면.

- ▶서우회보(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전직 사우회刊. 발행·편집인 신우식) 2호=6월 1일자. 타블로이드 8면.
- ▶한경동우회(발행인 嚴瑛燮) 7호=5월 25일자. 타블로이드 8면.

※ 본 회 日誌

(6월)

- 6일 = 현충일
- 10일 = 편집회의
- 12일 = 후생복지위원회
- 14일 = 건강강좌
- 17일 = 자격심사위원회
- 19일 = 제117차 이사회
- 27일 = 한국신문협회 창립 51주년 기념식

♣ 주 소 · 전 화 바 껴 었 습 니 다

- 김정기 =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32-2. 301호
- 이광영 = 서울 동대문구 이문 3동 225. 대림A. 106-503
- 이구열 = 서울 마포구 성산 2동 대림

■ 회 비 내 신 회 우

· 2008년분

강명수 강용식 김호기 문 청 박용근 신대근 신정호 양성목 오동환 윤종보 이연상 인보길 장종덕 전종열 정용희 정형수 조규진

· 2007년분

황원갑(06년 포함) 정용희 정형수 조규진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A. 102-902

· 현준건 = 서울 은평구 불광 1동 미성 A. 101-408

www.gg.go.kr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M y T o w n M y G y e o n g G i



풍요로운 대한민국 3만불 시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대한민국 성장률보다 두 배를 앞지르며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성장 엔진 경기도-

IT·BT·NT 등 첨단 지식산업을 선도하며 전국 일자리의 60%를 만들어 낸 곳,
경기도가 이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3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

평화와 희망의 땅

산업경제중심

세계 최대 IT·NT·BT 산업

친환경 첨단농업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Challenge & Innovation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국한기술,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전해동박의 개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진의 도전이 에너지, 환경 및 신소재 분야로 이어집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새로운 힘을 키우고 '성공신화 창조'의 해'로 기록될 2008년-

일진에게는 더 큰 내일이 보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미래창조기업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스플레이 일진DSP 일진소재 일진금속 일진유니스코 일진반도체 일진네트웍스 이니투스 전주방송 아이텍인베스트먼트